



알칸사사랑의교회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은혜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본 교회는 미국 컴벌랜드 장로교단에 소속된 건전한 교회입니다.
The church is a sound and conservative Presbyterian church and belongs to the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 섬기는 이 (Church Staff)

담임목사 홍성태 Rev. Sungtae Hong
(501-703-3251 / nanumsangja@gmail.com)
중앙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Graduated Chungang Univ. &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온누리교회, (서울)지구촌교회, 더사랑의교회 사역

당회원 (Session Member)
전영순 (Young Soon Jeon)
조순자 (Sun C. Stamp)
최은정 (Eunjung Choi)

■ 오시는 길 (Church Location)



■ 선교사 후원 (Missionary Sponsorship)

- 정기 후원 (Regular)
- Muazzam John (Nehemiah Trust Pakistan, Pakistan)
 - Adam & Rachel Jamison (Hope Ignited, African Guinea)
 - 김금찬 & 김미자 (Dany & Mi Kim) (JDM, El Salvador)
 - 이주영 & 조윤미 (YJ Lee & YM Jo) (Gallaudet University, NY)
 - 김대원 & 정만희 (DW Kim & MH Joeng) (HIS, Cambodia)

■ 모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Adult Worship	오전 11:00 Sun am 10:55	본당 Main Hall
수요일예배 Wednesday Worship	저녁 7:30 Wed pm 7:30	본당 Main Hall
토요일예배 Saturday Worship	오전 7:00 Sat am 7:00	본당 Main Hall

어린이 예배와 모든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분간 모임이 없습니다.
Children's services and all small groups are not held due to COVID-19.

2021년 8월 22일
제1048호, 2021-34
담임목사: 홍성태 (Rev. Hong)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주일 오전 11:00		인도: 홍성태 목사 [Pastor Hong]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Jubilate Praise Team
참회의 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함께 Together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Together
찬 송	Hymn	내 주의 보혈은 I Hear Thy Welcome Voice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김효정 집사 SIs, Grace Kim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Pastor Hong
설 교	Sermon	호세아 [Hosea] 5:1-7 미스바 & 다볼 게이트 [Mizpah & Tabor Scandal] 홍성태 목사(Pastor Hong)
송 영	Doxology	선한 능력으로 Von Guten Mächten
축 도	Benediction	설교자 Pastor Hong

**예배 중 헌금시간이 없습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Offering time during worship. Please do it before the service.

주 중 모 임 [Weekly Meetings]

수요일예배 [Wednesday] (8월 25일 저녁 7:30)	토요일예배 [Saturday] (8월 28일 오전 7:00)	목장모임 [Small Group]
물고 물리는 세상 (Biting Each Other) [사사기(Judges) 9:26-29]	생명의 삶(Living Life) [사사기(Judges) 10:10-18]	당분간 열리지 않습니다. [Temporary Closed]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Warm Welcome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2. 예배에 대한 안내

Worship Guidance

당분간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하며, 다음의 경우 온라인 예배로 즉시 전환됩니다. All services will be held simultaneously with in-person and online and will be immediately converted to only online in the following cases:

- 주정부의 락다운 조치 The State Lock-down
- 교인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 School closed where the children of church members attend
- 예배에 참석한 멤버가 확진이된 경우에(자녀 및 가족 포함) When a member(including children and family) is a case of positive on COVID-19.

**위와 같은 경우, 즉시 홍성태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n the case above, please inform Pastor Hong immediately.

3. 교우 소식

손경석-한영희 가정(민성, 민우): Atlanta, GA 이주

4. 기도하십시오!

Pray at Home

1. 마지막 시대의 징후가 더욱 명확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2. 코로나의 델타 변이가 심각한 여러 나라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유한 나라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나누게 하소서
3.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 땅을 가득 채운 총기 범죄, 증오, 혐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게 하소서
4.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환경을 갖춘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소서
5.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소문이 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은혜 나눔

How Afghan Pastors Reflect on God's Sovereignty by Mark Morris

아프카니스탄 목사들이 믿는 하나님의 주권

7월 초, 아프간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아프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앙을 등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독교로의 개종 자체를 금지하는 이슬람 공화국에서 기독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프카니스탄 교회 지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참된 믿음을 법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8월의 묵상 본문 : 빌레몬서, 사사기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회생을 치러야 다음 세대가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부에 신앙을 등록했고 외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마쳤고, 체포되지 않았다.

놀라운 교회 후퇴

그러나 삼 일 전 탈레반에게 마을을 빼앗긴 한 신자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한 아프카니스탄 목사의 말을 들었다. 그는 열네 살 딸을 탈레반에게 앓겼고, 그 아이는 “강제 결혼”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상 성노예로 끌려갔다. 토요일 들어서 탈레반이 이미 카불 거리를 걷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는 아프간 친구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또한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나기를 바라는 현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떠날 수 없었다. 도로와 비행기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그 주일 아침에 우리는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을 나누었다. 때때로 바로왕은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방에 있던 한 아프카니스탄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7장 6절과 예레미야 43장 10절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 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확실하게 탈레반을 ‘나의 종’ 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펼쳤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악이 아프카니스탄의 형제자매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악이 그 도시와 국가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펴고 선행과 자비로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우리 자신의 오만과 마주했다. 그는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단지 그의 진흙일 뿐이다. 우리는 또 이사야서 8장과 이사야서 28장을 통해 기초석과 거칠게 하는 돌의 이미지를 묵상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모두는 탈레반이라는 폭풍우를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초석인 예수님이라는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야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했다.

고난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우리는 언젠가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비밀 교회 모임에서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이 주었던 훈계를 요약하는 것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고난을 맞아야 한다.
2.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겸손한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맞아야 한다.
3. 예수님의 고난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고난과 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4.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이다.
5. 마지막으로, 선행하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로 당신의 백성을 고통과 격동의 바다로 인도하신다.

찬양 리더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를 골랐다.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 아프카니스탄 형제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카니스탄 대통령이 방금 사임했습니다. 이제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히리라 아멘”

더 힘있게 하는 뉴스

월요일 아침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말에 예비하신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린다. 이 어려운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탄식하며 울었다. 주말을 기점으로 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프간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탈레반은 어린 기독교 소녀들을 뒤쫓고 있다. 탈레반이 조금 전 한 교회 지도자의 집을 습격해서 성경과 서적을 압수했다고 한다.

여기 뎀피스에서 사역하는 한 아프간 목사는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 단어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그는 어떻게든 Mohabat.tv와 facebook.com/alghantv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소망의 메시지를 아프카니스탄을 향해 라이브로 방송할 것이다.

토기장은 오늘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토기를 만들고 있다.

마크 모리스(Mark Morris)는 Union University's Memphis College의 도시신학과 학과장이며, 난민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화시키는 사역을 하는 미국 멤피스 난민 센터의 리더이다.